月川 趙穆의 生涯와 學問

鄭 萬 祚*

Ⅰ.

한 시대에 중요한 활동을 하였던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한동안 逆臣으로 기록되었다가 수백년 뒤에 忠節로 존경의 대상으로 바뀐 死六臣은 그 극단의 예였고, 15세기 當代에 여러가지 개혁정책을 제시한 실무관리로서 이름이 높던 訥齋 梁誠之가 16~17세기의 사림정치기에는 전혀 잊혀진 인물로, 다시 18세기말 正祖代에는 식견이 탁월한 經世學者로 재조명되어 부활한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月川 趙穆(中宗19~宣祖39, 1524~1606) 역시 이런 유형에 속하는 인물이 아닐까 한다. 退溪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홀로 陶山書院에 從享될 만큼 당대 사림의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다고 하겠으나, 막상 그의 인물됨을 전하는 자료조차 불충분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가 평가 또한 陶山書院의 유일한 配食者로서는 걸맞지 않은 선에 머물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때문에서다.

물론 여기서 月川을 변론한다든가 새삼 그 인물의 위대성을 부각하려는 따위의 俗된 시도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月川의 생애와 학문세계의 일단을 살펴봄으로써, 한동안 世人의 腦裡에서 멀어졌던 그 인물에 대한 관심을 되돌리고 인식을 새로이 하는 자료를 제공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Ⅱ.

行狀[1]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月川의 본관은 橫城이고, 家系는 고려사 열전에

---

* 國民大 史學科 敎授

1) 月川의 행장은 琴蘭秀의 아들이고 월천에는 甥姪이 되는 獻納 琴憬이 편찬한 것인데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 V.38의 「月川集」에는 빠져 있다. 필자가 참고한 행장은 최근 月川의 후손집안에서 영인한 「月川先生文集」(권6)에 수록된 것(pp.339~374)이다

실린 趙冲과 같은 인물을 배출할 정도로 고려시대의 顯族이었다고 한다. 月川집안이 영남의 聞慶지역으로 옮겨오기는 月川에게 5대조되는 溫宝때로서, 대체로 고려말 조선초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에 이를 피하여 낙향하던 당시 지배층의 동향과 軌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조선초기에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하는 신흥사족은 대개가 고려후기에 郡縣의 鄕吏 또는 土姓吏族에서 科擧·軍功·기타의 添設職을 통해 拔身하여 士族化의 과정을 밟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2] 그들은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로의 진출을 꾸준히 모색하였으며, 동시에 在京旣成官人들을 혼인의 형식을 통해 자신들의 근거지로 끌어들여 세력기반으로 삼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성향은 안동을 위시한 영남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月川 5대조로서 旌善郡事의 벼슬을 지낸데다가 아들인 琠가 문과에 급제하여 藝文提學에까지 현달함으로써 嘉善大夫 戶曺參判에 까지 추증되었던 溫宝의 문경 移住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아쉽게도 溫宝의 妻家에 관한 記錄은 없어 聞慶에서의 기반이 어떠하였는가는 잘 알 수 없다.)

月川의 고조부되는 璋은 世系圖와 月川行狀에는 承文院正字의 벼슬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月川 자신이 지은 先府君(大椿)墓碣[3]에 보면 世宗8년에 成均生員同進士第二人으로 出身이었지만 병으로 벼슬하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璋은 醴泉의 孫璟의 女를 娶하여 醴泉 金堂谷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이후 月川의 증조부인 胤孫, 祖父인 瓊 때까지 3대가 여기에서 世居하였다. 그리고 月川의 父親되는 大椿은 4살때 父母를 잃고 榮川의 外家에서 양육되었으며 군수를 지낸 安東權氏 受益의 딸을 아내로 맞으면서 妻家가 있는 禮安 月川里로 거주를 다시 옮겨 비로소 예안사람이 되었다. 이와같이 月川의 선대는 낙향한 사족집안으로서 聞慶-醴泉-禮安으로 주로 妻家를 따라 거처를 옮겨 살아 왔음을 알 수 있다.

月川의 父親 大椿(成宗18~宣祖6, 1487~1573)은 月川行狀에는 陰職으로 參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역시 月川이 지은 先府君墓碣이나 世系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대신 墓碣에 孝經과 大學·中庸 등을 밤마다 坐誦하고 또 아동들이나 挾冊者에게 가르치기를 열심히 했으며, 月川이 처음 退溪를 찾아 뵈었을 때 退溪가 鄕里의 同學인 李文楑(聾岩李賢輔의 子)에게 "趙某有子矣"라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退溪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던 禮安地方 士林의 일원이었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大椿代에 들어와 月川의 집안은 어느정도 경제적 기반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력의 뒷받침이 없는 士人으로

2)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發展』의 「영남학파 諸家門의 社會經濟的 基盤」 참조
3) 月川先生文集 권6. 墓碣·墓誌, 先父君墓碣

【 月川의 家系圖 】

1세
翌(雙冀門生)
8세
冲(平章事・文正公, 事蹟詳見麗史)
15세
溫寶(旌善郡事, 居聞慶縣)
16세
縣孫監環女
璋(世宗8年生員・進士病不仕, 移居醴泉金堂谷)
珸(世宗, 文科・藝文提學)
培
17세
司孫正某女
胤孫(務功郎・司醞署直長)
18세
主咸簿昌金제敬女
瓊(有志學, 早世不第)
19세
郡安守東※權受益女
大椿(陰叅奉, 養育於榮川外家, 娶妻因移居禮安月川里)
※ 成宗 17年 文科, 价川郡守, 以老授嘉善, 居禮安, 娶宣金氏 通贊洪之女
20세
婿縣琴監蘭秀
婿部權將重器
婿琴憙
金宣鳳城齡女
參權安奉盖東世女
穆(逸, 工叅, 月川)
肅
獻業納
叅憬奉
縣愷監
正忭言
婿卞維
文錫科朋主簿
進壽士朋
婿金光纘
婿權昞
士婿人金裕吉
龜早朋天
士婿人李壽
婿黃中敬
晟
晩
昷
昀
叅婿奉鄭時亨
碻
生確員
婿韓瑮
尙寯
尙義
尙健
婿權益昌
樂善
從善
就善
之善

서의 생활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상의 안정이 妻家에 힘입었을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大椿 妻家인 權受益[4]의 재산정도를 알려주는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보존여부도 未詳) 말하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月川行狀에 보면 임진왜란중에 月川이 奉先庵에 있는 外曾祖母의 묘에 성묘하고 있는 사실에서 願堂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집안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런 경제력때문에 大椿이 妻家로 옮겨 살았을 것이며(물론 男歸女家婚이 보편적이던 時代相도 감안되어야 하겠다)[5], 후일 月川이 8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外祖考 제사를 친히 지내면서 말리는 자손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자손중에 제사를 받들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奉祀條件으로 月川父子가 그 妻·外家의 재산을 물려 받았다고 짐작되는 것이다.

아뭏든 月川의 父 大椿代에 이르러 예안에 정착함으로써 月川집안은 일정한 경제력위에 學力을 바탕으로 한 士林으로서 禮安一帶의 다른 사족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는 月川兄弟의 혼인관계를 통해 다시 확인된다. 大椿과 安東權氏 사이에는 성장한 2남 3녀가 있었다. 그중 맏아들 肅은 딸만 두고 早歿함으로써 月川이 兄亡弟及의 당시 관행에 따라 家系를 이었다. 月川은 역시 安東權氏 盖世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盖世는 權居約-自謙-哲從-輳로 이어지며 退溪門人들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는 안동의 在地士族집안 출신이었다[6]. 나머지 月川의 누이들은 琴憙·權重器·琴蘭秀 등에게 시집갔는데 奉化 琴氏가 禮安지역에 탄탄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退溪家門과도 혼인을 트고 있는 대표적인 士族[7]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月川의 활동은 이러한 기반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月川은 15세 되던 중종33년, 마침 內艱을 맞아 향리에 머물던 退溪를 처음으로 찾아뵙고 학업을 청하였다. 이때 退溪는 38세로 아직까지는 學者로서의 면모보다는 官人的 자세를 갖고 있던 시기였다[8]. 그러나 이때 맺은 師弟의 緣은 退溪

---

4) 위와 같음, 先夫人墓碣을 보면 大椿의 丈人인 權受益은 安東을 본관으로 하며 成化 丙午年(1486)에 文科에 급제하여 价川郡守를 지냈고 老職으로 嘉善의 品階를 받았으며, 通贊을 지낸 宣城 金洪의 딸을 아내로 맞아 禮安에 살았다고 한다.

5) 15·16세기 在地士族의 성장과정에서 혼인이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음과, 고려시대 이래 16세기까지 혼인에서 男歸女家의 풍습이 보편적이었으며 이에따라 落鄕하는 在京士族이나 吏族에서 士族으로 신분을 향상시킨 집안이 혼인에 의해 지방세력과 결합하여 在地士族으로 정착, 성장해가는 사례에 대해서는 李樹健의 앞의 책 제2장, 영남학파형성의 사회·경제적 기반에서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특히 安東權氏의 경우 지방의 在地士族에게 사회적 胎盤을 제공해주었다고 하는 지적(같은 책 p119)은 落南집안으로 聞慶·醴泉등지를 전전하던 月川家門의 外家와 妻家가 모두 안동권씨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 정착과 성장과정을 살피는데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

6) 李樹健 앞의 책 p.136의 〈표 2-23〉 참조

7) 같은 책 pp.168~170

8) 退溪 역시 당시의 다른 士類들과 마찬가지로 27세때에 進士試에 합격하고 이후 성균관에 들어가 과거시험 준비를 했으며 34세때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후 承文院副正字·弘文館修撰·成均館司成등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君主를 輔導하여 經綸을 폄으로써 일반유학자의 理

가 下世할 때까지 30년 넘게 계속되었으며 退溪의 학문적 성취에 따라 月川 또한 성장함으로써 退溪의 많은 門人들 가운데서 그 衣鉢을 전해받은 으뜸가는 제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月川이 經書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退溪에게 質疑하게 된 것은 27세 때부터였다고 하며 32세 때 延平答問을 읽고 論한 글을 退溪에게 上書하였다 하나, 32세 때에 두번째로 上京하여 成均館에 留學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는 科擧에 대한 의욕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道學에 관한 月川의 연구가 본격화한 것은 아마도 退溪와 高峯사이에 명종15년부터 비롯된 四端七情論辯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39세 때인 명종17년 心經에 관한 質疑가 처음 나온 이래 4~5년간 退溪와 사이에 人心道心精一執中圖라든가 心經附註·大學章句, 程敏政의 心統性情圖 등에 대한 질의와 問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이르러서는 단순히 退溪에게 稟質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예컨대 程敏政의 心經附註에 대해 강한 비판과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退溪으로 하여금 心經後說을 짓게 하였던 데서 보듯이 당당히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였다[9]. 이 시기에 이르러 月川은 道學者로서의 기반을 굳히고 이후 藏修와 篤行으로서 蘊蓄을 쌓아간 것으로 보인다.

과거를 통하지 않은 月川에게 처음 벼슬이 내려지기는 그 나의 43세 때인 明宗 21년이었다. 이때는 文定王后의 죽음으로 外戚의 전횡이 막을 내리고 朝野에서 新政에 대한 기대가 크던 시기였다. 그래서 士林의 進出이 현저해지며 그 사림의 영수로서 退溪의 信望이 어느때보다도 높았다. 따라서 왕으로부터 退溪에게 연이어 召命이 내려졌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退溪문인에 대한 進用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月川에게는 처음 吏曹의 천거로 恭陵叅奉이 제수되었고 뒤이어 선조원년 성균관의 천거로 集慶殿叅奉이 되었으나 謝恩후 곧 退歸하였다. 月川의 존재가 중앙정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선조6년 三公과 吏曹가 같이 논의하여 當代의 隱逸로서 학행이 뛰어난 인물이라 하여 李之菡·鄭仁弘·崔永慶·金千鎰 등과 함께 그가 천거되면서였다[10]. 그는 다섯 인물가운데 首薦이었으며 단번에 參上으로 벼슬이 올랐다. 이후 81세 때에 從2品인 嘉善大夫로 工曹叅判의 직을 받기까지 40여차례에 걸쳐 혹은 품계가 오르고 관직이 제수되었다[11]. 그러나 대개의 경우

想인 道學政治를 실천하겠다는 관료의 길을 밟았다. 그러나 곧 그는 당시의 정치상황에 실망한데다가 朱子大全을 처음 접하여 朱子學에 크게 심취하게 되는 43세때부터 이미 물러날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하며 특히 그의 46세때 일어났고 그 자신이 한때 파직되기도 하며 그의 親兄인 瀣가 杖殺되는 비운을 겪었던 乙巳士禍이후 완전히 관료생활을 청산하고 養眞庵·靜習堂·寒棲庵 등을 지어 본격적으로 산림학자로서의 길에 정진하게된다. 따라서 적어도 43세 이전까지 퇴계는 관료적 자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拙稿, 「退溪李滉의 書院論」, 韓沽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pp 373~374 참조)

9) 月川先生文集 권4, 辨疑의 「心經稟質」참조

10) 宣祖實錄 권7, 6년 6월 申亥·癸丑

이를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月川이 벼슬살이다운 벼슬을 한 것은 53세 때인 선조9년 봉화현감으로 2년 남짓 재직한 것과, 65세 때인 선조21년 2년간 합천군수를 지낸 것이 전부였다. 지방관 시절 月川은 향교를 중수하고 儒學을 일으킨 외에 별다른 치적을 남기지 못했으며, 오히려 남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집을 부려 막힌 부분이 있다는 物議를 빚었고[12], 또 貪汚했다는 評[13]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吏治에는 능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이 현실에 직접 참여한 관료로서 月川의 정치적 능력은 그리 뛰어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山林學者로서 月川이 차지했던 비중과 담당하였던 역할은 의미를 달리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士林政治의 핵심인 '山林'의 존재와 관련해서이다.

宣祖이후의 정치는 사림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하여 흔히 士林政治라 불리워진다. 사림정치는 그 정치이념이나 정국운영방식에 있어서 앞선 시기와 다른 몇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道學政治의 再現을 궁극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현실의 實利的인 정책에 앞서 명분과 義理를 정책수립과 정국운영의 기본원리로서 가장 중요시하고, 따라서 富國强兵보다는 民生安定과 財政減縮 및 賦稅裁減論을 우선하면서 君主權의 일방적인 행사에 의한 專制보다는 臣僚들의 道學에 기초한 公論爲主의 정치를 보다 선호하고, 나아가 是非明辯과 君子小人辯에 의한 朋黨중심의 用捨黜陟과 政局운영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면서 君主중심의 調停論을 오히려 亡國의 要因으로 간주하는 것 등의 내용[14]이 그것이다.

---

11) 年譜에 나와 있는 바에 따라 중요한 官職除授만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43세(明宗 21)	將仕郎 恭陵叅奉,	不赴
52세(宣祖 8)	造紙署司紙,	不赴
53세(宣祖 9)	奉化縣監,	赴任
57세(宣祖 13)	全羅·慶尙都事,	不赴
62세(宣祖 18)	工曺正郎兼校正廳郎廳,	赴任
64세(宣祖 20)	陜川郡守,	赴任
69세(宣祖 25)	朝散大夫 濟用監僉正,	不赴
71세(宣祖 27)	軍資監主簿,	謝恩陳疏
79세(宣祖 35)	通政大夫 工曺參議,	不赴
81세(宣祖 37)	嘉善大夫 工曺叅判,	不赴

12) 鶴峰先生文集補遺(安東大 退溪學硏究所編 退溪學資料叢書 v.3 聯芳世稿 권7)의 書, 答趙士敬穆. "聞左右於人言 似欠虛受 居官處事 亦或固滯云 未知緣何有此流言耶 外間雖不足恤 然於自省之道 豈問虛實耶 無狀夙慕高風 契分有素 不聞何敢不告 …… 幸自今書辭往來 隨病發藥俾無辱師門 千萬 千萬

13) 金時讓의 涪溪記聞 下(大東稗林 제22권) "趙叅判穆 號月川 退溪門人也 性執無才 居官不治 又有簠簋之誚 嘗拜陜川郡守 問去就於西厓 西厓答曰 人之去就 如食之寒煥 人自知之 月川怒遂成隙 及西厓之放歸田里也 以書易之 寒煥二字還送 附會李山海甚力 皆爲斥西厓也 卒賴其力配享陶山書院

14) 拙稿, 「朝鮮時代의 士林政治」(韓國史上의 政治形態, 1993), 및 「17세기 중엽 山林勢力의

山林은 바로 이러한 사림정치의 내용을 한몸으로 나타내고 있는 集約的인 존재였다. 본래 山林이란 초야에서 명리를 멀리하고 덕성을 함양하던 산림처사나 학자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사림정치가 본격화하면서 山林은 바로 그 도학의 상징이요 의리의 주인이며, 국가의 元氣라는 사림세력의 宗師로서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아래로는 樵夫騃婦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을 일컫게 되었다. 국가의 막중한 典禮문제나 명분시비에 관한 산림의 말한마디는 그대로 사림세력의 의리가 되고 不動의 國是로 정립되어 그에 대한 異論은 용납되지 않았다[15]. 그러므로 영의정이란 관직도 산림앞에서는 빛을 잃었고, 한때는 至尊한 임금의 자리로서도 그 앞에서는 한걸음 양보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山林존재의 확립은 후일의 仁祖代를 거친 이후로서 孝宗·顯宗·肅宗代가 그 전형적인 발전을 본 시기로 말해진다[16]. 그러므로 이제 막 사림정치가 자리잡아 가던 宣祖代의 시점에서 山林의 존재를 말하고 月川을 여기에 비견하려는 논의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선조초년에 영의정이던 李浚慶이나 신진사류의 대표이던 栗谷 李珥가 제각기 退溪를 義理의 주인으로 삼아 정국을 운영하고자 했으며, 선조중기 이후 栗谷과 鄭澈이 成渾을 山林으로 내세워 정국운영상의 이념적 후원자로 삼았던 것[17], 그리고 北人이 鄭仁弘을 山林으로 앞세워 柳成龍중심의 南人政權을 공격, 실각시키고 선조말년 이후의 정국을 주도하였던 사실 등은 이미 宣祖年間부터 山林의 존재가 정치상에 적지않은 비중을 가지고 浮上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위에서 든 예에서는 일부러 제외시켰지만 月川은 바로 이러한 山林의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다. 퇴계의 여러 高第가운데 그 衣鉢을 전수받은 으뜸가는 존재였던데다가, 과거를 멀리하고 政爭에 초연하며 山林에 은거하여 踐履篤實하게 修己에 힘쓰는 經明行修之士로서 조야에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산림으로서의 조건을 구비하는데 충분하였던 것이다[18]. 山林으로서 月川의 역할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예는 壬亂중에 일어났던 講和論에 대한 배척운동이었다. 그는 왜란이

國政運營論」(擇窩許善道敎授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참조

15) 李佑成, 「李朝儒敎政治와 山林의 존재」(韓國의 歷史像) 참조

16) 禹仁秀. 「17세기 山林의 勢力基盤과 政治的 機能」(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2)

17) 禹仁秀, 위의 논문 pp 10~12 참조, 成渾에 대해서는 涪溪記聞(下)에 "成牛溪渾 少有重名 以遺逸起拜吏曹叅判……史臣書之曰 身在草野 遙執朝權云"이라 하여 그 山林의 존재를 말하였다

18) 宣祖實錄 권181, 37년 11월 戊子
趙穆爲工曹叅判(穆爲人篤志力行 好學不倦 自少時 從遊於文純公李滉門下 講論經義 聞見最多 …… 晩節徵辟不就 杜門自修 左右圖書 仰而讀俯而思 訓誨後學 多有成就 嘗與豊原府院君柳成龍同門友善 成龍爲首相當國之日 不救金德齡之死 穆聞之怒形于色 及講和之議起 穆以書責之 以主和誤國四字目之 成龍大怒 遂與之絶交 至今年逾八十 猶手不釋卷 遠近學者稱之無異辭退溪之門 守正篤學 惟此一人而已

일어나자 군량을 모집하고 의병조직을 지휘하였으며 軍資監主簿의 자격으로서 강화론을 성토하는 격렬한 상소를 올렸다. 同門인 유성룡이 영의정으로서 난국의 수습에 임하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화론을 펴는 자를 秦檜에 비유하면서 亡國之術로서 비난하였던 것이다[19]. 뿐아니라 體察使 李元翼이 찾아 왔을 때도 和議說에 대해 분연히 "오늘날로 보건대 秦檜가 옳고 諸葛亮이 그르다고 하겠구나" 하면서 배척해 마지 않았다. 그의 講和排斥論이 당시의 講和論을 철회시키는데 어느만큼 영향을 주었는지는 의문이지만, 후일 강화론에 참여했던 유성룡과 남인정권에 대한 士論의 향배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되어 남인 실각의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20]. 그런데 山林으로서 月川의 위치에는 하나의 큰 취약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 기반이 같은 퇴계 문인이 주축이 된 남인에게서가 아니라 李山海를 중심으로 하는 北人에게 있었던 점이다. 아래에서 言及되겠지만 柳成龍을 중심으로 한 安東지역 退溪 門人들과 月川중심의 禮安지역 退溪 門人들과의 사이에 현실인식의 차이에 따른 대응방식의 상이성에서 비롯된 의견대립과 갈등은 끝내 두 세력에게 모두 커다란 정치적 상처를 남기게 하였으며 月川 個人에게도 산림으로서의 위상을 정인홍에게 가리게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퇴계 문인 내에서 월천의 위상을 보기로 한다. 이 문제는 불가불 퇴계 문인들의 分岐와 관련을 갖지 않을 수 없다. 陶山及門諸賢錄에 수록된 퇴계 문인은 모두 368명이라고 하지만 그중에는 詩 한 수나 한두 통의 안부편지만으로 門人으로 자처하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퇴계의 法統弟子를 엄선한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그 하나의 기준으로서 퇴계문집편찬[21]에 직접 관여하였던 인물들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19) 위와 같음 그리고 宣祖實錄 권56, 27년 10월 辛酉 "軍資監主簿趙穆上疏 …… 且聞講和之說 無不勝痛憤 …… 昔金人 以此愚宋 宋以此自愚 當時宰相秦檜 以此誤國 萬世之下 猶爲切齒 此則殿下所深鑑也.

20) 임진왜란이 끝날 즈음인 선조 31년 9월 영의정 柳成龍의 파직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成均館儒生李好信 등의 유성룡배척 상소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成龍本以邪佞之物 巧言令色 厚誤一世 擅弄朝綱 恣行胸臆 夫我國與此賊 不共戴天之讐 而以和之一字 誤國家大事 宋之秦檜 何以加此 …… 與趙穆鄭仁弘輩 藏修林下 韜櫝未布 皆由此奸之塞其路也(宣祖實錄 권104, 31년 9월 庚戌)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金坽의 溪巖日錄·琴蘭秀의 惺齋集草稿·鄭慶雲의 孤臺日錄, 河回忠孝堂古文書 등을 분석한 李樹健의 연구에는 西厓와 月川과의 갈등관계 및 특히 선조 31년의 西厓공격시 月川과 鄭仁弘系의 제휴관계를 상세히 밝혀주고 있다.(「西厓柳成龍의 學問과 學脈」, 한국의 철학 v.23,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5, pp.9~12)

21) 徐廷文, 「退溪集의 初刊과 月川·西厓是非」(北岳史論3, 1993). 이하의 서술은 이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다.

姓 名	生歿年	世居地	비고
金 富 倫	1521~1598	예안	천거
趙 穆	1524~1606	예안	천거
金 就 礪	1526~ ?	안산	
鄭 琢	1526~1605	안동	문과
琴 應 夾	1526~1596	예안	천거
琴 蘭 秀	1530~1604	예안	천거
金 誠 一	1538~1593	안동	문과
柳 雲 龍	1539~1601	안동	陰叙
琴 應 壎	1540~1616	예안	천거
李 德 弘	1541~1596	예안	천거
柳 成 龍	1542~1607	안동	문과
禹 性 傳	1542~1593	서울	문과
南 致 利	1543~1584	안동	
金 澤 龍	1547~1627	예안	천거

(徐廷文: 퇴계집의 初刊과 月川·西厓是非, 北岳史論3, p.220에 의거함)

이들은 문집간행에 각각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고 편집방침을 놓고 각기 의견을 제시하며 수십년간 여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만큼 퇴계문인 중 핵심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거주지에 따라 예안과 안동으로 구분되며 연령의 차이와 과거급제냐 천거냐에 따라서도 달랐다. 대체로 보아 김부륜·조목·금응협·금난수·금응훈·이덕홍·김택룡 등 예안출신은 연배가 높은 편으로서 이른 시기에 퇴계의 문하에 출입하였고 또 주로 천거를 받은데서 보듯이 관직보다는 향촌에서의 士族생활에 만족했던 인물들이었다. 반면 유성룡·김성일·유운룡·우성전·정탁 등은 안동을 거주지로 하였고 적어도 퇴계가 학자로서 명성을 얻은 후인 명종 7~8년이후에 사제관계를 맺었기에 상대적으로 후배들이었으며, 또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던만큼 관료로서의 활동에 적극적인 세력이었다. 兩者사이의 이러한 차이점은 퇴계사후 예안과 안동에 마치 경쟁하듯 陶山書院과 廬江書院을 세웠던데서 드러나듯이[22] 점차 界限을 쌓게 하였으며 마침내 퇴계문집을 편찬함에 미쳐 그 편찬방침을 놓고 심각한 의견차이를 노정하게 된다고 한다. 즉 前

22) 陶山書院은 宣祖 7년 건립되어 이듬해 賜額되었으며 廬江書院은 宣祖 9년 건립되어 100년 뒤인 肅宗 2년에 虎溪書院으로 사액되었다. 또 月川이 光海君 7년에 도산서원에 追配된데 비해 金誠一과 柳成龍은 光海君 12년에 廬江書院에 追配되었다.(增補文獻備考 권213, 學校考12 各道祠院 慶尙道 安東·禮安條)

者는 선생의 글은 片言隻字라도 모두 빠뜨리지 않고 실어야 한다는 全稿수록원칙을, 後者는 퇴계사상의 精粹만 담아 마치 朱子大全같은 寶典으로 삼아야 하기에 한만한 문자는 과감히 刪節하는 精選의 원칙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자신들과 관련된 글의 수록을 통하여 향촌세력 상호간의 결속강화를 도모하려 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학연에 대한 적통성 확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두 세력간의 숨은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후자의 견해는 유성룡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반면 전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그 논리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月川이었다. 퇴계문집은 결국 서애측의 반대를 외면한채 月川의 주관하에 宣祖 33년 간행을 보게 된다.

퇴계 歿후 陶山書院을 건립하여 퇴계의 香火를 받들고, 이곳을 중심으로 활발한 강학활동을 벌려 퇴계의 학풍을 계승, 확대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던 月川은 퇴계문집의 간행을 통하여 기라성같은 퇴계의 문인들 가운데 단연 퇴계의 衣鉢을 받은 嫡統弟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그의 山林으로서의 聲望도 이러한 바탕위에서 구축되었다고 할 것이다. 士論의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光海君때 北人政權의 지원을 받았다는 등의 잡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月川이 陶山書院에 유일한 配食者로서 入享되며, 또 仁祖反正 이후 그의 門人들이 일거에 쇠퇴하여 명맥조차 부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23] 從享자체에 별다른 시비가 없었던 사실도 이 시기에 쌓아놓은 퇴계 문인으로서의 月川의 확고한 지위때문이었다고 하겠다.

Ⅲ.

行狀에 보면 月川은 저술하기를 즐기지 않아 많은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歿후 60년이 지나서야 겨우 간행을 보게 된 문집마저도 西厓와의 갈등관계를 담은 내용때문에 문인 金澤龍이 지은 月川言行錄[24] 등의 기록을 제외시켜버려서 月川학문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소략하나마 문집에 의거해 그 학문의 편린을 짐작하기로 한다.

經學은 月川학문의 본령이니만치, 또 수십년간 퇴계를 모시면서 문의하고 의견을 나누었을 터이므로 그 남긴 문자가 적지 않았겠지만 현재 전해지는 것은 心經

23) 李樹健, 앞의 논문, 「西厓柳成龍의 學問과 學脈」 pp.11~13 참조

24) 西厓의 門人 金應祖의 西厓辨誣錄에 "先是 月川門人金澤龍 撰月川言行錄 指出月川丁酉書張皇之 金乃一世嗤侮之人 不足與較 而金叅奉確(月川外孫子임) 撰行錄請神道碑文於鄭桐溪"라고 한것으로 보아 鄭蘊에게 神道碑銘을 요청하던 仁祖 18년경까지는 言行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稟質·朱書節要稟質·尙書疑義·家禮疑義의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月川의 저술이라기 보다는 제목 그대로 사제간의 문답내용으로 되어 있어 月川경학사상을 살피는데 한계를 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므로 略하기로 하거니와 다만 여기서는 行狀에 실린, 心經附註와 羅整菴의 困知記에 대한 月川의 견해만을 소개하겠다.

본래 心經은 宋의 陳德秀가 道學者들의 심성수양에 관한 격언을 모아 편집한 책인데 여기에 明의 程敏政이 그 註釋書를 붙여 心經附註라 하였다. 이것이 전래되기는 중종말년경인데 이를 접한 퇴계는 크게 감탄하여 믿기를 신명과 같이하고 공경하기를 부모와 같이 했다고 한다.[25] 따라서 퇴계문인들도 자연 심경을 많이 읽었으며 그에 대한 연구가 크게 성행하였다.(증보문헌비고에 실린 9종의 심경에 관한 조선유학자들의 저술 중에 퇴계와 그 문인 李德弘·曺好益·李含亨·鄭逑 등의 것이 7종이나 된다[26].) 月川이 心經附註에 관해 질의하기는 39세 때(명종 17년)였으며 이후 4~5년간 집중적으로 질문과 논란을 전개하는데, 이때 月川의 心經에 대한 이해가 크게 깊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심경 및 그 부주에 대한 퇴계문인들의 반응은 퇴계와 약간 달랐던 것 같다. 錦溪 黃俊良은 "陳德秀는 실상이 없고 范浚은 절실하지 못하며 黃幹의 소견은 더욱 떨어지고 程敏政은 식견이 밝지 못한데다가 채택이 정밀치 못하다[27]"라고 비판했으며 月川 역시 심경을 읽기는 좋아했으나 부주의 기록에서 四書說에 朱子註를 오로지 하지 않고 他說을 붙인 것과 또 尊德性만 강조하고 道問學을 가볍게 다루는데 의심을 가졌다가 陳建의 皇明通紀에서 程敏政의 인물됨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을 읽고는 그가 名利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禪定에 빠져 있었다고 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28]. 이에 퇴계는 심경부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心經後說을 지었는데 이는 주로 月川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退溪 高峯사이의 四七論辯과 함께 師生間에 학문토론을 통한 相互裨益을 이룬 사례로 칭송되고 있다[29].

---

25) 退溪先生全書 권58 雜著, 「心經後論」, 「心經」 및 「心經附註」과 退溪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申龜紘의 「退溪李滉의 心經附註研究와 그 心學의 특징」(영남대民族文化論叢8), 徐遠和 「李退溪與心學」(退溪學報 58·59合), 左藤仁 「李退溪と心經附註」(退溪學報 68) 등이 있다

26) 增補文獻備考 권246, 藝文考5, 儒家類에 보면 李德弘의 心經質疑 1권, 曺好益의 心經質疑 1권, 李咸亨의 心經標題 2권·心經質疑附註 1권, 李滉의 心經釋疑 1권·心經質疑考誤 2권, 鄭逑의 心經發揮 2권, 朴世采의 心經要解 2권, 周世鵬의 心經心學圖 1권이 실려있다.

27) 錦溪先生文集 권7, 書 上退溪先生問目(心經, 癸亥)

28) 心經稟質에는 皇明通紀에서 篁墩을 비판한 글의 인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琴惕이 지은 行狀에는 月川의 心經에 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적절히 잘 요약해 놓았다.
好讀心經 爲一生勤苦受用之地 其於經傳有來諸儒之說 信之如神明 敬之如嚴師 …… 而於篁墩附註 尤致意 常怪其於四書之說 不專用朱子本註 而附以他說 又以未章之論 偏於尊德性 而以道問學爲不足事 先生且讀且疑 而又讀皇明通紀 見篁敎賣題勢利之誚 著道一篇之說 始知其爲人 爲學於名利上未能擺脫得去 而陷溺於江西禪寂之弊 於是反復稟質於李先生

이외에도 月川은 퇴계의 理學通錄에 대한 跋文에서 羅整菴의 困知記에 대해서 程註에 대한 異說을 내세워 陽尊陰壞했다고 비판했으며, 陳白沙나 王陽明의 禪合·良知說이 족히 斯道를 그르치게 하고 後學을 병들게 한다고 하여 僻異端의 차원에서 비난해 마지 않았다[30]. 그리고 先賢의 글에서 자신을 수양하는데 필요한 격언을 베껴내어 이를 모아 困知雜錄이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선조년간 李珥와 成渾사이에 人心道心論辯을 거쳐 율곡이 인심도심설을 지어 임금께 올리면서 四端七情이 모두 氣發이며 理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주장[31]을 편데 대해서도 月川은 분연히 "망령되이 자기 주장을 내세워 朱子의 理發氣隨 氣發理乘의 定論을 동요시키려 하니 이야말로 腹心의 적이라"고 배척해 마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월천은 역학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선조27년 11월 경연에서 주역강의를 담당할만한 유학자로 우의정 김응남에 의해 천거되어 특별히 소명이 내린 사실[32]과 행장에 나오는 주역구결을 개표했다는 기록이 있음에서이다. 그러나 경연참여는 월천의 사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존문집에는 유감스럽게도 주역관계기록이 보이지 않아 그 실상은 알 수 없다.

이상이 대체로 月川의 경학에 관한 견해인 바 한마디로 말해 퇴계이상으로 주자를 받들며 주자설에 대한 비판이나 異說을 僻異端의 차원에서 극력 배척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이점은 후일의 宋時烈에게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바, 같은 山林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月川의 이러한 정통주자학적 자세는 그의 정치론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月川은 관직생활에 미련을 두지 않고 또 벼슬다운 벼슬을 하지 않았으므로 좀체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宣祖17년 盈德縣令職을 사양하면서 올린 甲申 辭職疏와 講和에 반대해 올린 甲午 陳情疏 그리고 鄭琢에게 보낸 한통의 편지 및 朔·蜀·洛 三黨是非論을 통해 그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선조 17년의 갑신사직소[33]에서 그는 당시의 사회가 마치 한몸에 달린 손

---

29) 鄭蘊撰 嘉善大夫工曹參判月川趙先生神道碑銘併序 "(前略) 尤愛心經 口誦而心體之 及見皇明通紀 見篁墩 賣題之事 道一編之說 而始疑其爲人爲學 乃錄稟質於李先生 李先生於是作心經後論 師生之間 互相補益如此(月川先生文集, 附錄)

30) 위와 같음. 특히 陽明學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李樹健의 앞의 논문 「西厓柳成龍의 學問과 學脈」의 pp 4~5 참조

31) 琴 憬이 지은 月川行狀에는 "有人著人心道心圖說 以爲四端七情 皆是氣之發 而不由於理 妄爲圖說"이라하여 人心道心說의 작자를 밝히지 않았으나 栗谷先生文集 권14, 說에 人心道心圖說(壬子, 奉敎製進)이 실려 있고 壬子年이 宣祖 15년이며 또 皆是氣之發이라한 내용으로 보아 栗谷 李珥임이 분명하다.

32) 宣祖實錄 권57, 27년 11월 丙戌·戊子, 권60, 28년 2월 己酉

33) 宣祖實錄 권18, 17년 9월(日干支없음) 및 月川先生文集 권2, 疏.

과 발, 배와 등이 제각기 사람 구실을 하려하되 이를 管攝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과 같은 혼란된 사회로 단정하고는 자기로서는 안목이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낼 수는 없으나 평소에 보고 느낀 소회로서 한두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豪右兼倂과 奸吏弄法은 엄격히 단속해야 옳지만 너무 지나쳐 혹 橫罹寃死者가 있을지 모르므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향촌사회에 대한 중앙이나 지방관의 지나친 통제를 완화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조선초 이래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면서 향촌세력의 움직임은 토호의 武斷鄕曲이나 元惡鄕吏의 발호로 지목되어 중앙의 강한 통제를 받았고 엄히 처벌되었다. 그래서 성종년간에 사림세력의 자치활동 근거지로서 留鄕所 復立이 논의되었으나 실패하였다. 따라서 사림세력은 중앙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敎化를 앞세워 鄕約을 통하여 그들의 활동을 보장받고자 하였으며 서원건립도 같은 의미로 파악된다[34]. 결국 사림세력은 향촌사회를 사림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했던 것이며, 月川의 위와 같은 건의는 향촌활동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는 당시 향촌 사림의 여론을 대변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 月川은 泥湯介亂을 계기로 왕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사를 양성하려는 정책을 취하려는데 대해 민심이 한번 흩어지면 다시 수습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민심안정을 우선하면서 민심과 관련된 內治를 튼튼히 하는 固本에 힘쓸 것을 주장하였다. 固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임금이 聖學에 힘쓰고 賢邪를 분별하여 進退를 엄히 하며 언론을 보장하고 재정을 절약한다는 일반적인 王道政治論으로 시종하고 있어 별다른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月川의 이 주장은 후일의 사림정치에서 표방되던 內修外攘論[35]의 선구를 보인 것으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月川이 살던 시기에 정치상으로 가장 크게 문제되었고 또 어떠한 형태로든 月川자신도 관련되지 않을 수 없었던 朋黨問題에 대한 견해를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해 月川은 두편의 글을 남기고 있다. 하나는 朔·蜀·洛 三黨是非論이고 다른 하나는 答鄭子精(琢)書[36]이다. 여기서 月川은 朋이란 善類를 지칭하는 말이며 黨은 惡類를 가리키는 말인만큼 朔·蜀·洛 등 宋代 名人들의 분립을 당으로 지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분립은 출신지나 친소관계, 언론의 同異에서 비롯된 것으로 學徒와 같은 의미 이상은 없는 만큼 漢代의 宦官, 唐代의 牛僧孺·李宗閔의 무리와 같이 利害를 위해 서로 결탁하고 聲勢에 의탁하는 黨人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였다. 그의 이 논설은 시기가 밝혀져 있지

34) 李泰鎭, 「士林派의 留鄕所復立運動」(震檀學報 34·35) 및 「士林派의 鄕約普及運動」(韓國文化 4) 참조
35) 拙稿, 앞의 논문 「17세기 중엽 山林勢力의 國政運營論」 참조.
36) 月川先生文集 권6의 論 및 권3의 書.

는 않으나 사림이 동인 서인으로 분열하던 초기가 아닌가 한다.

洛·蜀·朔 三黨에 대한 상기 月川의 견해로 보건대 사림분열에 대해 月川은 일단 善類集團의 分岐로 보고 黨目을 쓰는 데는 반대하며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낙관하였으리라 본다. 율곡이 사류의 분열을 亂亡의 요인으로 본 것(士林盛而和則其國治 士林激而分則其國亂 士林敗而盡則其國亡)[37]과는 상당히 다른 견해이다. 이는 율곡이 서인측의 입장에서 붕당론을 폈던 것과는 달리 조목은 명분을 쥐고 있던 동인측의 입장에서 사류분열자체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月川의 이러한 견해는 선조16년의 李珥에 대한 탄핵에서 비롯된 癸未三竄문제로 동서인 간에 대립과 상쟁이 본격화하자 달라지게 된다. 즉 율곡이 내세운 調劑鎭定論을 따르는 鄭琢에 대해 調劑鎭定策이 끝내 간사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마저 小人으로 몰아가고 말 것이라 하여 邪正의 分辨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초기에 사림분열을 낙관적으로 보던 데서 그 분쟁이 君子小人論의 성격을 지니게 된 것으로 인식하여 철저한 분별을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月川은 荀彧論이라고 하는 한편의 글을 남기고 있다. 여기서 그는 荀彧이 撥亂反正을 위해 曹操의 謀主가 되었으나 簒逆을 꿈꾸는 曹操의 뜻을 막으려다 그 핍박으로 죽음을 택한 사실을 논하였다. 그는 일반의 견해와 달리 荀彧이 죽은 것은 한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曹操를 위해서라고 논단하고 군자냐 소인이냐는 평가는 그 기준이 行事보다는 心事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조선의 붕당정치에서 당인들의 인물평가가 바로 心事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상통하며 行蹟을 주로 하여 시비를 절충할 수 있다고 보는 調停論 내지 蕩平派의 견해[38]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Ⅳ.

桐溪 鄭蘊은 月川의 神道碑를 지으면서 그 末尾에 다음과 같이 그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였다. 즉

> 선생의 美質은 퇴계를 스승으로 모심으로서 성취될 수 있었고
> 퇴계의 道學은 선생을 제자로 거둠으로서 빛나게 되었도다
> 선생이 아니라면 어찌 퇴계의 磨琢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37) 栗谷全書 권7, 疏箚 5, 辭大司諫兼洗滌東西疏(乙卯)
38) 拙稿, 「歸鹿趙顯命硏究」(국민대 韓國學論叢 8)의 Ⅱ. 蕩平說 참조

퇴계가 아니었다면 어찌 선생의 깨우침을 보장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한마디로 퇴계의 충실한 祖述者로서 月川의 위치를 매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當代는 물론 後代 宋時烈의 引證例[39]에서 보듯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師說에 충실하다는 것은 그런만큼 獨得의 創見과 새로운 境地의 開拓에는 未洽하다는 의미도 된다. 따라서 그동안 月川의 학문적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月川의 생애와 학문을 대나무통처럼 좁은 소견으로 그것도 荒雜하게 더듬어 본 결론도 결국 從來說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사림정치와 관련하여 山林的 존재로서의 그 정치적 位相과 政見의 일단을 재조명하고, 퇴계에게 稟質한 내용이 일방적인 授受관계가 아닌 敎學相長의 討論의 場이었음을 心經附註의 예로서 밝혀 보려고 한 것이 그나마 애쓴 작은 흔적이랄 수 있겠다.

39) 肅宗 初 庚申換局後 金益勳(金長生 손자)의 처벌문제로 西人내의 의견이 분열되었을 때 大老로서 추앙받던 尤庵宋時烈은 김익훈을 伸救하면서 "文純公李滉之門人趙穆 於滉死之後 視其子孫與同氣 其在官時 至誠陳戒 卑冤過失 當時後世 咸稱穆爲其師盡道矣"(肅宗實錄 권14 9년 1월 辛酉 御晝講)라하여 趙穆을 끌어와 趙穆처럼 스승의 손자인 金益勳을 잘 인도하지 못한 자신의 허물을 말하고 있다.